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0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9년 6월 4일 화요일 (음 5월 2일) 제2303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 내년 예산 확보 '집중'

송하진 도지사, 기재부 방문  
GM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어려움 처한 지역 실정 설명  
주요 현안 예산 반영 요청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외부환경 변화에 취약한 기존 주력산업 체질개선과 지속성장이 가능한 미래 성장동력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3일 기재부 주요 예산부서를 집중 공략하는 등 2020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행보에 나섰다.

특히, 기재부 부처 실링 배정 시 전북도에 영향이 큰 SOC, 농업, 환경, 문화분야의 부처실링이 축소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기재부 단계에서 주요 예산 증액을 위한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한 시기로 판단됨에 따라, 송 지사는 이날 전북도 현안사업과 밀접한 기재부 핵심인사를 방문해 부처별 사업 삭감방지와 GM군산 폐쇄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의 현 실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국가예산 확보 활동을 적극 전개했다.

송 지사가 기재부 구윤철 2차관, 양충모 사회예상심의관 등 기재부 예산 핵심인사와 조영래 환경부 장관을 방문했다.

송 지사는 삼라농성 농생명산업과 관련 식품-종자-ICT농기계-미생물-첨단농업 등 아시아를 대표하는 스마트

농생명 밸리 육성을 위해 아이디어와 기술력은 있으나 자본이 부족한 청년 예비창업자 및 초기 벤처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한 '국가식품클러스터 청년 식품창업 허브 구축' 설계 용역비 국비 10억원, 농축산물 미생물산업 시장의 다변화로 빅데이터 기반의 맞춤형(주문제작형) 복합미생물 제조시스템 구축을 위한 '복합미생물 산업화 기반' 실험실 구축비 14억원 반영을 주문했다.

또한, 농업분야의 데이터기반 서비스 플랫폼 구축으로 미래농업의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빅데이터기반 스마트팜 SW융합 서비스 플랫폼 구축' 국비 20억원을 적극 건의했다.

미래신산업과 관련 주력산업의 근본적 체질개선과 신산업 생태계 구축을 이끌 수 있는 지속 성장이 가능한 환경 경 조성을 위해 전북지역을 홀로그램 4차산업의 전진기지로 구축 성장할 수 있도록 '디지털라이프 서비스 실현을 위한 홀로그램 기술개발사업'의 연구개발 및 실증 사업비 265억원, 군산항 자동차 수출물동량 확보를 통한 전체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요 역할을 할 '중고자동차 수출 복합단지 조성' 구축비 50억원을 요청했다.

또한, 여행체험1번지와 관련 멋스런 전북 역사·문화 및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다시 찾고 머무르고 싶은 대한민국 여행·체험 1번지 조성을 위해 전북의 우수한 국화자원을 발굴, 보존·정리 및 활용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국화기관으로 '전라유학진흥원

설립' 설계용역비 5억원 반영을 요청했다.

이어, 새만금·조선산업 지원과 관련,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과 현대중공업조선소 기동중단에 따른 조선업 종사자 일자리 전환 지원을 위해 새만금 신항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새만금 신항만 부두시설 규모 확대, 재정사업 전환'과 함께 내년 설계용역비 51억원과 '조선기자재기업이 해상 풍력구조물 제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업종전환 지원'을 위한 인력양성 및 기술사업화 국비 90억원 반영 필요성을 적극 설득했다.

아울러, 도정 현안과 관련해 새만금 수질 중간평가 결과 기축본노가 새만금호의 주요염원으로 분석된 만큼 익산천, 용암천을 통해 만경강으로 유입되는 익산 왕궁, 김제용지 현업축사 오염원 저감을 위해 '익산왕궁 현업축사 매입비' 123억원, '김제 용지축사 밀집지역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비 2억원이 반영 지원될 수 있도록 설득했다.

임상규 도 기획조정실장은 기재부 예산심의를 끝나는 8월까지 송하진 지사 등 지휘부, 실국장 등이 국가예산 확보에 전방위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14개 지역 시장군수를 포함해 지역국회의원 및 수도권 지역 등 범전북 출신 의원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예산정책협의회 등을 수시 개최 하는 등 시군, 정치권과의 공조활동 시스템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 출산·일자리 수요 큰 지자체에 '추가 교부세'

행안부, 내년 지방재정 운영방향... 교부세 통보 시기 9월로 앞당겨

정부가 내년에 미세먼지 저감과 출산 수요가 많은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교부세를 더 배분하기로 했다.

또한, 지방교부세 통보 시기는 기존 12월에서 9월로 앞당긴다.

행정안전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책설명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지방재정 운영방향'을 발표했다.

이 방향을 보면 재정분권의 핵심인 지방소비세율을 내년에 6%포인트 추가로 올리기 위한 6개 법령 개정을 9월까지 끝낸다.

계획대로 지방소비세율이 인상되면 2020년부터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21%(약 8조5000억원)가 지방세로 이전된다. 현재 '76대 24' 수준인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이 '74대 26'으로 바뀐다.

이렇게 확충된 지방세 중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편입돼 있는 3조6000억원 규모의 국고보조사업은 지자체의 일반사업으로 전환해 기초·교육·청정 자원 변동분 9000억원과 함께 3년간 정액으로 보전한다.

나머지 4조원은 기존 방식대로 지역별 가중치(수도권:광역시:도=1:2:3)를

적용해 배분하고, 수도권에서는 상생기금 35%를 출연한다.

행안부가 지자체에 지급하는 교부세 산정 시 공동현안에 대한 반영 비율은 높인다.

노후 경유차량의 조기 폐차와 친환경 경차 보급 등을 통해 미세먼지를 저감하거나 출산율을 높이는 지자체에게 교부세를 더 주는 식이다.

고용 위기 지역이거나 생활SOC(사회간접자본) 매칭 비율을 높여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곳에도 재원을 올해보다 더 많이 배분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또 교부세 통보 시기를 기존 12월에서 9월로 최대 3개월 앞당긴다. 지자체가 보다 효율적으로 재정을 편성·집행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취지다. /김진성 기자



천만그루 정원도시 전주 '한국은행과 함께하는 나눔의 정원 관리 협약 체결식 및 기념식수 식재'가 3일 전북 전주시 한국은행 전북본부 본점에서 실시된 가운데 관계자들이 시삽을 하고 있다.

## 천만그루 정원도시 조성

### 한은 앞 공간, 시민 녹색쉼터로

전주시, 나눔의정원 조성 기념  
한은 기부기념 소나무 등 심어

전주시가 천만그루 정원도시 조성에 나선 가운데, 한국은행 직원들은 은행 앞에 조성된 정원과 나무를 가꾼다.

전주시는 3일 한국은행 전북본부 앞 팔달로에 조성된 '나눔의정원'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전주시의회 강동화 부의장, 최요철 한국은행 전북본부장을 비롯한 직원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나무심기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전주시에 따르면, 천만그루 정원 도시는 전주를 미세먼지 걱정으로

부터 자유로운 도시, 시원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행정과 시민, 기업·민간단체가 함께 도시 곳곳에 나무를 심어 아름다운 정원으로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최근 팔달로 도시숲 조성사업으로 재탄생한 '나눔의 정원' 완공을 기념해 소나무를 심었다.

한국은행은 이번 나눔의 정원 완공을 기념해 750만원 상당의 반송 등 7종 1200주를 기부했다.

전주시와 전주시의회, (사)푸른전주운동본부, 한국은행은 향후 정원을 지속적으로 가꾸고 관리키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협약도 체결했다.

앞서, 시는 도시숲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은행 앞 화단을 공원 형태로 조성해 시민들을 위한 쉼터 공간인 나눔의 정원으로 만들었다.

나눔의 정원 산책로에는 녹음수와 다양한 빛깔과 질감의 나무들, 계절별로 꽃이 피는 초화류 등 8종 5300본이 식재됐으며, 시는 의자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 쉼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김승수 전주시장은 "천만그루 정원도시는 단순히 나무를 심는 일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고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도시를 만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송효철 기자

##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 2년반만에 연 1.75%→1.50% ↓

부동산 등기 등을 신청할 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인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발행금리가 기존 연 1.75%에서 연 1.50%로 낮아진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4일 발행분부터 제1종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를 0.25%p 인하하기로 했다. 지난해 2017년 1월 1.50%에서 1.75%로 인

상한 후 약 2년 반만의 조정이다. 최근 국민주택채권 유통 금리의 하락 추세를 고려한 조치다. 국민주택채권은 국민주택자금의 조성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다. /김정태 기자

#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 JJC전북

YouTube KakaoTV NAVER TV  
Dolm NAVER 전북뉴스

##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79

Btv ch.285

tv ch.253

JJC본사: <http://www.jjctv.co.kr> Tel 02-2057-0011 Fax 02-2057-002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 23F

JJC전북총국: <http://jjctv063.co.kr> Tel 063-246-0885 Fax 063-286-0887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 5층